



전주시 여의동, 돈미블링 착한가게 현판식 진행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동장 송해인)와 여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춘자)는 지난 20일, 관내 음식점 '돈미블링(대표 양병하)'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나눔 캠페인으로 '돈미블링'은 여의동의 16번째 착한가게로 등록되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하게 되었다.

양병하 돈미블링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춘자 여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선뜻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죽향동, 피오리움서 지역복지 발전 모색 회의

남원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접숙 죽향동장)는 지난 20일 시 피오리움에서 지역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장소인 '피오리움'은 지역 소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위한 감성 기반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회의에는 임접숙 공공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시의 달빛 어린이 병원 및 공공산아학국 운영, 인천 공학버스 운영, 2025남원 국제드론 제전 with 로보트 등 각종 시정사항을 공유하고 피오리움을 견학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여름철 안전·폭염 대응 교육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20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및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수칙 ▲폭염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교통안전 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동지구대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보행 시 사고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심폐소생술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농축협, 채권관리·자산운용 실무 회의

김제시 관내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채권관리 주요 현안 및 자산운용 실무회의'가 최근 전주잠재원주축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연체채권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외부 자산운용 확대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제시 관내 13개 농축협의 상임이사, 전무·상무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연체채권 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산운용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회의를 주관한 김유현 김제시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채권관리와 자산운용은 지역농협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회의가 실무자의 대응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산 파프리카, 가능성을 열다’

전북육성 품종, 소비자 대상 첫 현장 판매… 종자 자립의 새출발 알러

국산 파프리카의 품질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현장 홍보·판매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20일 운봉농협과 함께 도청 로비에서 ‘국산 파프리카 홍보·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에서 자체 개발한 국산 파프리카 품종을 일반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이고,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국산 품종 전시 부스 △식식 행사 △직판장 등이 운영돼 도민과 유동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선한 맛과 품질을 경험한 방문객들은 국산 파프리카의 경쟁력에 깊이 공감했다.

이번에 소개된 파프리카는 전북농업기술원이 육성한 품종으로, 남원 운봉 고랭지에서 재배됐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기술설명회에서는 품종 개발 배경과 재배 노하우, 유통 방안 등이 소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전국적으로 파프리카 산업은 여전히 수입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95%를 넘는다. 이에 따라 종자 비용 부담과 품질 불안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



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산 종자가 수입 종자 못지않게 우수하다"며 "생산비도 절감되고 생육 안정성도 높아 농가로선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최준열 원장은 "이번 행사는 기술원이 연구한 결과물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육성 파프리카 품종의 보급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 도민은 "청정환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색상의 파프리카를 맛보니 너무 맛있고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다"고 말하고 "사서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며 "앞으로 전북에서 개발된 파프리카 품종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산 파프리카의 씨앗이 전북 땅에서 싹을 수 있도록 도와 농업인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된다.

/오만호 기자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 ‘대한민국 신지식농업경영인대상’ 수상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이 지난 19일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2025 대한민국 신지식농업경영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의 지평 기반 확충, 미래지향적 농업 경영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게 되었다.

광동열 조합장은 '무주군 농업인들과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언론인협회 주관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충(忠), 효(孝)를 바탕으로 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로자를 발굴해 그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리더십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보건소, ‘손 씻기 뷰박스’ 무료 대여사업 연중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계절성 식중독, 장란 감염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인 ‘손 씻기 뷰박스’ 무료 대여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손 씻기 뷰박스’는 형광 물질 로션을 손에 바르고 손을 씻은 후, 거울이나 스크린을 통해 손 씻기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기구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손에 남아 있는 세균을 직접 눈으로 확인, 자신의 손 씻기 습관을 점검하는 흥



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대여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감염병관리팀(063-620-7932)에 연락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은 20%, 세균성 이질·장티푸스 등 설사 질환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정희연 팀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를 배우고 올바른 손 씻기 습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기업체 간담회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지난 20일, 남원시 평생학습관 별관 2층에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원사회복지관 외 42개 업체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여성의 고용안정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되었으며, 협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화(063-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옥 새로일하기센터장(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취업 후 성공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제1회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20일, 고창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제1회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숙경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체험 및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한숙경 교육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폐교의 교육적 가치를 살린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의 활용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오세환 고창군의회의 의원은 “폐교재산이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시설공사 분야 청렴·소통 간담회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20일 정읍교육지원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분야 청렴 공동협약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이라는 청렴 비전 아래, 정읍교육지원청 공사 관계자 및 감독관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읍교육지원청의 공사 단계별 청렴 정책 및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K-water 영·섬유역협력단, 김제시에 2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협력단(단장 김지원)이 취약계층에 따뜻한 '情'을 나누고자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K-water 영·섬유역협력단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 적립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를 통해 마련됐으며, 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K-water 김지원 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밀반찬 나눔 실천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회장 장성태)는 2025년 6월 20일(금요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병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 공동으로 '행복한 나눔, 행복을 베풀' 네 가지 밀반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 4종(열무김치, 공작만, 미역줄기, 고추말치볶음)을 만들어, 전주시내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준비된 이번 밀반찬 나눔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